

## 성령은 우리로 선교하게 하십니다.

### ■ 본문

행 1:1-8

### ■ 시작 찬송가

304, 190, 366장  
(통 404, 177, 485장)

### ■ 헌금 찬송가

283, 289, 435장  
(통 183, 208, 492장)

### ▶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1. 거듭나게 하심 (요 3:3,5)

2. 성도 안에 거하심  
(고전 3:16, 롬 8:11)

3. 기름을 부어주심  
(요일 2:20)

4.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요 16:13)

5. 권능을 채워 주심  
(미 3:8, 눅 24:49)

6. 거룩하게 하심  
(롬 15:16, 살후 2:13,  
엡 4:30)

7.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  
심 (롬 8:16, 갈 4:6)

8. 위로하심  
(요 14:16-19)

9. 기쁨을 주심  
(롬 14:17, 살전 1:6)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사람 안에는 정신, 인격, 도덕, 지성, 마음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때문에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 영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도록 이끌어 줍니다. 성령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오직 성령 안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스런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인 성령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행 1:6-8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  
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  
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1.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 1)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παράκλητος,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결에(παρά, 파라)’와 ‘부르다(καλέω, 칼레오)’라는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 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  
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 2) 성령은 성전에서 기다리며 기도해야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에 나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세우신 것이 성전 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성전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성전입니다.

을 228-29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  
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 3) 오직 성령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도움을 받아도 예수님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서 예수님께서서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은혜를 주시지만, 가장 귀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 2. 성령으로 충만하면 선교합니다.

### 1) 선교는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데 있습니다.

명성교회 개척 후 첫 번째 예배 설교는 “안디옥 교회처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던 것처럼, 명성교회가 걸어갈 길은 남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설교 그대로 1980년 7월 6일 창립이후 이듬해인 1981년부터 ‘신원리 교회’를 비롯한 몇 교회를 돕기 시작된 선교가 지금은 61개국 264가정, 47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 여러 지역을 돕는데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처녀는 몸을 가꾸어야 하지만, 엄마가 되어서는 아이를 위해 헌신 하듯, 명성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마 10:5-8**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롬 1:14-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 2) 예배와 복음 증거는 성도의 두 가지 큰 사명입니다.

성도는 예배함으로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남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가꾸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복음 전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후 4:5-7**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 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 오늘의 한마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에 열심을 내십시오.

####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의 안보와 통일을 위하여
2. 대통령과 3부요인 및 여야의원들을 위하여
3.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회개와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4. 군에 입대한 자녀들과 해외유학생들을 위하여
5.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및 61개국, 266가정, 474명의 해외선교사를 위하여
6. 탈북자와 새터민,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7. 에너지(물, 전기 등) 절약을 통한 생태계 환경보전을 위하여
8. MCM, 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및 C채널 방송선교를 위하여
9.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 ▶ 선교와 관련된 명언

1. 내가 천 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중국에 바치겠다.  
- 허드슨 테일러

2.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 윌리엄 캐리

3. 교회의 최고 과제는 세계의 복음화이다. 수백만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이다.  
- 존 웨슬리

4.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아무리 큰 화생을 치른다 할 지라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 피터 마살

5. 만일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충동시켜 주는 무엇인가가 없다면, 그것은 이 곳 본국에서 자멸하고 말 것이다. 멀리, 점점 더 멀리, 흑암의 세계 속으로 가라.  
- 데이비드 리빙스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워 버리겠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불타 없 어지게 하소서  
- 헨리 마틴